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⑩ 선학원의 침체와 중흥

선우공제회는 1924년 4월 20일 이후로 사무소를 한동안 직지사로 옮겼다. 선승들의 수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의 부족과 당시 불교계의 분위기가 요인이었다.

당초 공제회의 유지는 의연금과 회사금, 그리고 사중(寺中)의 토지가 아닌 개인이 마련한 법답(法畵)의 증여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다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선원(禪院)의 토지를 선원으로 이전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그 토지의 전체 수입을 해당 선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재정을 기초로 조선총독부에 사단법인 허가원을 제출하여 보다 안정적인 유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우공제회의 운영은 3년 후부터 대내외적인 문제에 봉착하였다. 1924년 이설운(李雪耘, 불영사), 김영해(金映海, 해인사), 이성혜(李性惠, 표훈사), 이성윤(李性潤, 표훈사), 김도권(金道權, 표훈사), 송만공(宋滿空, 정혜사) 스님이 법답을 헌납하고, 설립조사 남전(南泉)스님이 사유재산 1만원을 기부했지만, 선풍진작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회 정기총회에서는 유지원칙이 선우(禪友)들의 지원금을 통한 유지에서 선원의 토지수입과 각종 회사금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선승들의 생활자제가 어려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민족불교를 표방한 선학원의 설립취지 자체가 당시 총독부의 불교정책이나 불교계의 정서와는 그 이념과 활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어서 선우공제회의 운영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24년 11월 15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회의록에는 1923년 2월 1일부터 1924년 3월 14일까지의 결산기록이 나타나 있다. 수입이 563원 38전, 지출이 300원 3전이였다. 의연금과 회사금뿐만 아니라 선원의 토지수입으로는 선승(禪僧)들의 수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선학원과 선우공제회의 운영 유지를 통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단절시켰다. 선우공제회가 선원에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반환받아 사단법인으로 개편하고자 정관을 작성해 1923년 9월 6일 인가를 신청했지만, 총독부는 동년 12월 26일 그에 해당하는 정관의 조문을 삭제하도록 문건을 돌려보내버린 것이다. 정관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신청했지만, 정작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낸 것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1934년의 일이다.

한편 당시 조선총독부의 추산(推算)에 의하면 당시 승니(僧尼)는 대체로 7,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선승(禪僧)은 겨우 10분의 1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찰이나 그 소유 토지는 주지의 전단(專斷)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선원에 전승(傳襲)되어 온 토지를 반환받지도 못하고, 또 해주지도 않았다. 일제강점기나 해방이후 정화운동의 과정에서 독신비구승의 수행도량을 할애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선승은 조선시대의 불교사에서 그 위위를 차지하여 사찰은 대부분이 선원위주로 경영되었지만, 사찰령(寺刹令) 이후 선원은 사찰의 종속물이 되고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주지의 입장에서 보면 선승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사실 당시 불교계의 경향만 보더라도 선 수행보다는 교학과 경전을 탐구하



1930년대 금강산 마하연 선원(사진 위)과 직지사 천불선원 극락전(사진 아래)의 모습. 모두 당시 선학원 회원 사찰로 민족불교 중흥에 힘썼지만, 곧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공제회 운영 3년만에 난관

타개책으로 '사단법인' 추진

총독부 번번이 서류 반송해

사단법인 인가에 10년 걸려

직지사, 범어사 등 전전해

적음 스님 인수... 중흥 기틀

1931년 수좌대회 계기 마련



는 교종을 지망하는 스님들이 늘었다고 한다. 당시를 살았던 스님의 증언기록에 의하면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취처(娶妻)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종을 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막행막식의 부조리가 한국불교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선승은 어느 선원을 막론하고 수행하기를 청하는 방부(房付)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었다. 참선공부를 지도하는 조실(祖室)의 명성이 높으면 그 선원은 많은 운수납자(雲水衲子)들이 모여들었고, 신도와 주지는 기꺼이 이들의 수행을 뒷받침해주곤 했다. 그러나 사찰령 시행이후 일부 주지는 그 권한으로 선원에 방부를 들이는 스님들의 수를 제한시켰다. 주지는 선승들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했고, 더욱이 주지에게 동조적인 스님만을 골라 수용을 허락하는 폐습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1,360개 사찰 가운데 선우공제회에 가입한 선원은 직지사·백양사·범어사·건봉사·월정사·통도사·석왕사·해인사·선암사 등 9개 본산의 선원과 망월사·정혜사·불영사·마하연·장안사·개심사·신계사·남장사·천은사·용화사 등 10개 말사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선종의 명맥과 그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우공제회는 경성 사무소 유지비, 기타 경비를 염출할 길이 없어서 회원 20명이 논의한 끝에 잠시 직지사로 이전하였다. 정광호의 언급에 의하면 "당시의 광경을 직접 본 인사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때 선학원에는 순가락 하나, 불기(佛器) 하나 쓸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선학원은 1926년 5월 1일부터 범어사 포교소로 전환되었다. 1926년 12월 <불교>지에 수록된

'관보초록(官報抄錄)'은 "범어사 경성포교소가 경성부 안국동 40번지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근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이었던 석주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선학원이 남전스님을 비롯한 세분스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포교당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없다고 해서 일단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했다고 한다.(<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석주스님' 편, 25쪽)

선학원이 침체를 벗어나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31년 1월 21일 김적음(金寂音, 1900~1961)스님이 인수하면서부터다.

경성 선학원은 선학(禪學)을 선양하기 위해 창설된바 다소의 장애와 구속으로 10여 년간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일반 승려·신도와 여러 대덕(大德)은 실로 많은 유감으로 여겼었다. 그러

자 작년(1930) 겨울에 김상호(金尙昊)씨 주선으로 전금명(全錦明) 원주(院主)로부터 김적음 화상이 인계하였으니 때는 1월 21일이었다.

1931년 10월에 간행한 <선원(禪苑)지 창간호>에 수록된 내용이다. 적음스님은 엄정한 계행과 철저한 화두 참구로 '수행제일'이란 평을 들었던 재산 정원(霽山淨圓, 1862~1930)스님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만공스님께 건당(建幢)했다. 스님은 뛰어난 침술(鍼術)로 명의(名醫)라는 명성도 얻었다. 때문에 스님이 주석했던 선학원에는 아픈 몸을 치료해달라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930년 만공스님은 수행과 행정력, 재정력을 갖춘 적음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초부(草夫)라는 법호를 내렸다. "풀(한약)을 가지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이"라는 뜻이다.

중흥을 계기로 선학원에는 40여 명의 수좌가 여일하게 수행하기 시작했고, 신도들 역시 구름 모이듯 하여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우선 이탄옹(李탄翁)스님이 입승(立繩)소임을 맡아 납자뿐만 아니라 신도 20여 명이 참선을 시작했고, 선의 대중화를 위해 남녀선우회(男女禪友會)가 조직되었으며, 그 선양 차원에서 기관지 <선원(禪苑)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1931년 3월 23일에는 전선수좌대회(全鮮首座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수좌대회는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재천명하고, 선의 중심기관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선학원은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나 조직을 대내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안으로는 승속이 참여한 수행을 지속해나갔고, 밖으로는 수좌대회를 통해 당시 불교계의 왜곡된 행태와는 다른 수좌들의 결집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